제 649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4년 6 월 20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행동지침**
1. 바른생활
2. 바른교회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 제사장이 입을 옷

### (스가랴 3장 1 - 10)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계속 바쳐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므로 자기를 위한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히 7:26).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 속죄의 선언입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네 번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2년 열 한달 째 24일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미 화석류 나무 사이의 메시아를,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1.네 번째 환상이 주는 교훈

스가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네 번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탄은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으므로 내쫓으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 (1)메시아의 도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5절).

여호수아는 아무 것도 변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천사에게 명하시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셨습니다(4, 5절). 이 말씀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메시아이며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앞의 세 가지 환상에서도 메시아를 계시해 두셨지만 본문의 네 번째 환상은 매우 직접적인 것으로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 (2)선택교리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2절).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선택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 (3)성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4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행실로 점점 변하게 하여 성화의 단계로 나가게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는 것은 점점 주님을 닮는 거룩한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욥 29:14), 행실을 의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 곧 거룩한 행실, 의의 행실을 입어야 합니다.

성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사람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시간까지 거룩함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향하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성도는 지은 죄 뿐 아니라 짓고 있는 죄까지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7절).

우리는 그의 길을 걸어야 하고, 그의 요구를 지켜야 하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위치를 지키는 길이 되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 2.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모습(New High Priesthood)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은 메시아입니다(8-10절).

본문은 메시아를 몇 가지 대명사로 설명하는데 종, 싹, 한 돌, 일곱 눈이라고 합니다(8절). 한 돌은 성전 재건을 위한 돌을 말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일곱 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9절).

이것은 단 번에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므로 모든 세상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서 3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8절).

여호수아와 네 동료, 곧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루어질 제사장직을 여기서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계속 바쳐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므로 자기를 위한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히 7:26).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 속죄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4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는 승전감사예배를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지난 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발대식을 갖고 개전을 선언한 서울교회 성도들은 19일(토)까지 2주간 풍전등화에 처한 국가의 위기와 가정과 교회의 홍해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좇아 기도로 건넜다. 그 동안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기도로 무너뜨렸으며 아이성을 만나 아간의 죄를 토설하고 자신의 교만을 꺾기도 하였다. 연인원 10,000여명이 홍해를 건넜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다.

승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제2기 군입대자 교육

## 6월26일(토) 오후 3시 705호실에서

복음전파의 옥토가 되는 군부대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오는 7, 8, 9월중에 입대하게 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2기 군입대자 교육을 실시한다.

제2기 군입대자 교육은 오는 6월26일(토) 오후 3시 705호실에서 열리며 교육내용은 군과 신앙생활, 영성훈련 등이 이어지게 된다. 군입대자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군파송 준선교사로 파송 받아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전우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 특히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주일 찬양예배시간 파송식을 통해 담임목사의 축도를 받고 파송 받게 되는만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제2기 군입대자교육에 꼭 참석하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 2004교구 찬양대회 사랑상에 4교구 입상하다

## 믿음상-10교구, 소망상-8교구

지난 6월18일(금) 찬양을 위해 준비한 형형색색의 단체복을 입고 본당 2층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메운 교구 식구들은 교구별로 정해진 자리에 앉아 경건의 시간을 갖고 교구 찬양대회를 진행하였다.

사랑상에는 4교구, 믿음상에는 10교구, 소망상에는 8교구 그리고 희락상에 6,14,11,12교구, 충성상에 7,13,5,1교구, 화평상에 9,3,2교구가 각각 입상하였다. 사랑상을 받은 4교구에는 우승기가 함께 주어졌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간에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히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전국 오르가니스트 대회 열린다

## 6월 21일(월)부터 23일(수)

6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국오르간협회 주최 제 21회 전국 오르가니스트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크리스티 교수(오벌린 콘서바토리)와 마틴 젠더 교수(독일 하이델 베르그 국립음악원)가 초청되어 낮시간은 주로 세미나와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고 월, 화 양일 저녁에는 이들 교수의 연주회가 있게 된다.

# 6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필사>1회:** 정정희 권사(7교구) 최금자 권사(8교구)
**<요약정리>:** 이응선 장로(2교구)
**<통독>2독:** 이윤영 권사(5교구) 김희진 권사(6교구) 정빈모 집사(12교구) 정효자 집사(13교구)
**1독:** 서경학 집사(1교구) 이종형 집사(5교구) 김남옥 집사(5교구) 황보추자(6교구) 권희순 집사(12교구) 이용안 집사(14교구)

**<금주의 성구>**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수 10:12-13)
On the day the LORD gave the Amorites over to Israel, Joshua said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Israel: "O sun, stand still over Gibeon, O moon, over the Valley of Aijalon." So the sun stood still, and the moon stopped, till the nation avenged itself on its enemies (NIV Joshua 10:12-13)

만민에게 전도 - 제4기 단기선교팀 교육현장을 가다

# 방글라데시 상륙작전!!!

1기 단기 선교팀 – 태국 치앙마이

2기 단기 선교팀 –뭉골 울란바타르

3기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지슈크리스토이 이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듣기에도 영 낯선 이 벵갈어를 조금이라도 능숙하게 읽고자 입이 닳도록 외우고 또 외우는 이들이 있다. 8월초 '믿음'이라는 무기 하나 들고 바다를 건널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30여 명이 바로 그들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지옥지수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열성으로 방글라데시로 갈 D-day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국, 몽골, 캄보디아에 이어 벌써 4회째를 맞는 단기선교팀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할 노방전도, 의료 및 이미용 사역, 교회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윤영국 목사님 지도 아래 지난 4월부터 선교에 대한 기본훈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공부, 과거 선교경험, 실제선교준비 등을 선교경험이 있는 분들로부터 교육받고 있다.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2회부터 지금까지 쭉 참가하셨다는 최형열 집사님은 '단기선교 일거양득론'을 설파했다. 그는 "선교는 김치세미나를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들을 우리나라로 부르는 대신 직접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소득이 더 있다. 봄부터 준비를 시작해 여름에 단기선교를 다녀와 가을까지 정리를 하다보면 사실상 1년간 선교사역을 한다고 봐야한다. 이 기간 동안 선교팀은 계속 신앙훈련을 하는 셈이고 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이라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선교지에 가서는 애초 200여 명을 예상한 집회에 1000여 명이 몰리는 폭발적인 반응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느낄 수 있다. 또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10일간 적극적인 태도로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어학연수를 간 효과마저 있고, 다른 나라와 문화를 덤으로 배우게 되니 선교란 호사가 가득한 일이다.

단기선교에도 어려움은 있다. 청년부 노창훈성도는 회사에서 10일간의 긴 휴가가 허락되지 않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를 해결코자 이번 주부터 주일마다 8층에서 '**단기선교를 위한 책 바자회**'를 연다고 한다. 단기선교를 떠나는 팀원들이 각자 보옥 같은 책을 모아 내놓는다. 이들의 순조로운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할 겸 겸사겸사 들러 조금씩 보탬을 줌이 어떠할까.

고은실(편집부)

홍해작전 현장을 가다!

# 홍해를 건넌 용사들!!!

**최광성 집사(12교구)**

어린 시절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며 교회의 작은 봉사와 예배의식만 갖추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줄 알았던 저에게는 홍해작전은 아무 의미 없는 교회 행사였으며 홍해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는 교회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지난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임을 수지로 장막을 옮긴 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거리는 있었지만 조금도 멀다않고 예배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은혜 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천국과 같은 다락방 모임, 지난날의 교만함과 자만했던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늘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며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던 홍해작전 첫날,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례하라" 다시한번 결단케 하시고 여호수아의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1:9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나 어느 때 보다 애절하고 뜨거운 기도 속에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내 앞에 가로 놓인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실천사항 3번 하나님의 임재체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됨을 감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의숙 성도(1교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살아온 날들과 믿음 생활이 떠오릅니다. 부족했던 여러 모습들이 생각나 후회와 실망스러운 마음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가장 기뻤던 일은 너무도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 해 주신 일입니다.

6월6일 홍해작전 개전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과 부모님의 손을 잡은 어린이들, 해 맑은 젊은이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을 여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각 개인과 가정, 국가에게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전의 새벽기도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벽을 바쳤지만, 홍해작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먼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기, 교만한 마음과 불평을 버리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살기,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기, 때로는 나의 편리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기, 간절한 기도 생활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홍해를 건너 그렇게 바라던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홍해 작전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제 홍해작전을 마무리 하면서 저에게 헌신과 결단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매 주일과 새벽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목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 집사님, 권사님께 더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세정 성도(청년부)**

요즘 인기를 끄는 영화가 하나 있다. 트로이. '일리아드'를 재해석한 이 작품은 주인공인 아킬레스가 인기있는 이유는 미남배우의 멋진 외모도 한 몫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는 패배를 알지 못하는 타고난 전사이기 때문이다.

여기 또 다른 한 장수가 있다. 쉽사리 두려워하고, 작은 전투에서도 참패한다. 적장들의 계략에 넘어가 성급한 화친을 맺는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헬라인들이 칭송하는 전사의 용기도, 지자의 꾀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민족의 전사, 약속의 성취자로 기록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걷는 길은 처절한 자기 죽음의 길이다. 그저 약속 하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이다.

단순한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영혼을 통해 일하신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고, 이방 족속이던 갈렙이 약속의 땅을 얻는 그 곳에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당당히 거스르는 담대함이 내 젊음을 채우기를 소망한다. 바로 지금, 이 땅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약간의 부담감,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큰 기대감으로 참석하던 홍해작전. 잠이 가득한 눈으로 부모님의 발걸음을 따르던 중학생이, 미리부터 준비된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항상 적합한 말씀들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이 어찌 알 수나 있겠는가!! 말씀 안에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 세상을 향해 당차게 내딛는 발등위로 쏟아지는 햇살의 상큼함을 세상이 느낄 수나 있겠는가!!

## 엄마 아빠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박지원(초등부 5학년)**

저는 서울교회에 지난 1월에 등록하여서 처음 홍해작전에 참석하며 매일 새벽 4시40분에 일어나 교회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홍해작전에 가족 모두가 참석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면 홍해를 같이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너무 기쁘고 신기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지요. 여리고 성은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외치자 그 큰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리고 성에 비해 아주 작은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싸움에 임했다가 패하고 말았지요.

저는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과 기도의 삶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지요. 내년에는 홍해작전에 친구들을 깨워서 같이 나오고 싶어요. 힘든 만큼 기쁨도 컸으니까요.

고 박철훈 장로 1주기를 맞이하며

# 꿈 속 에 나타난 당신...

당신이 장로로 있을 때 무거운 짐은 언제나 당신 몫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져줄 사람도 없고 감당할 사람이 없기에 무조건 당신이 담당하였고 씨름하고 애태우고 기도하다가 말끔하게 처리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잘 정리된 후였기에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돈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도 교회 일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았고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교회 일이면 다른 일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돈 쓸 일이 많았지만 교회 때문에 쓰는 돈은 언제나 자기 몫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 의식이라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청지기의 샘플이었고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생전의 고 박철훈장로님(좌)과 함께...

가신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는 크게 남아있고 누구도 그 대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움만 더 할 뿐입니다.

노하거나 분내는 적이 없고 언제나 웃고 장내정리 잘하고 리더로서의 위치를 감당하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무슨 건만 생기면 전화하여 물어보고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조아대던 그 목소리가 일 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두서너 번 전화벨이 울렸고 일주일이 그 전화벨 소리에 시간가는 줄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열심만은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 번 꿈속에서도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께로 갈 수 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님이시여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천국에서의 기쁨을 길이길이 누리소서.

2004. 6. 김광신 장로

2004 교구별 찬양대회

# 승 전 가 를 부 르 는 하 나 님 의 백 성 들

홍해는 갈라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가나안 땅에 올라섰다.

지난 금요일 본당에서 열린 교구찬양대회는 2004년 홍해작전의 승전을 앞둔 전야제였다.

이 날 교구 찬양대회를 시작하며 이종윤 목사님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의 말씀을 주시며 온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해야 할 것이며,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일치와 화목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홍해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찬양대회는 육신은 조금 피곤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홍해를 건너며 여호수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감사와 승리의 찬양의 잔치가 되었다.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 된 이번 찬양대회는 한 달여, 이르게는 두 달 전부터 준비하며 다락방과 다락방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너와 나는 사랑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각색의 티셔츠, 율동, 제과점 모자, 그리고 막춤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들은 자신의 교구를 드러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모았다. 93세가 되신 강정옥 권사님이 참석하신 9교구는 지휘도 권사님이 하시므로 노익장을 과시했고, 11교구는 수화 찬양을 함께 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이 날 심사는 최동규 집사, 오자경 선생, 서명철 목사, 이태훈 목사가 맡았고 심사위원장인 최동규 집사(1부예배지휘자)는 심사평에서 찬양대회는 경쟁이 아닌 축제인만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팀과 특히 의외서 부른 팀에게 낙점을 주었다고 했다.

이번 찬양대회의 사랑상에는 4교구, 믿음상에는 10교구, 소망상에는 8교구가 각각 받았다.

취재: 허숙 사진: 유태서 · 오주명(편집부)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1일(월) 동아시아 모처에 설립한 신학교 제1회 졸업식 특강 및 설교차 출발하여 25일(금) 귀국한다. 김광신, 노문환, 하영수, 최학인 장로가 동행한다.
- 이현주 성도(7교구) Washington D.C I.I.F(국제금융연구원)로 발령 6월 23일 출국
- 이사: 임성훈 정유정 성도(2교구) 삼성동 101-8 서진빌라 A동 303호 T.3446-1764
- **주간 식당봉사**: 루디아 여전도회(6월 20일) 뵈 뵈 여전도회(6월 27일)
- **금요철야 담당부서**: 고등부 (6월25일) 대학 · 청년부 (7월 2일)
- **금주의 식사**: 윤석호 집사 · 박금실전도사 가정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
|---|---|
| TV |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br>●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 라디오 |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br>●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 호산나넷 – (http://hosanna.tv)<br>● 기독교 TV – (http://www.cts.tv) |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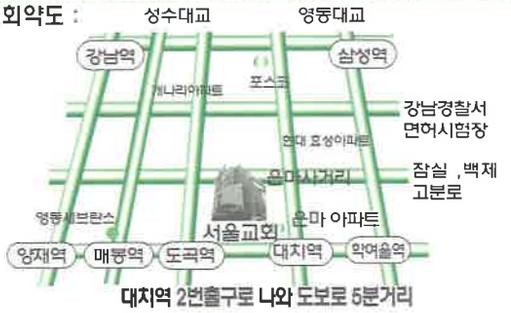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도록
2.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I 부 | 오전 9시 |
| | II 부 |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 주일 오후 5시 |
| 수 요 예 배 | I 부 | 오전 11시 |
| | II부 | 오후 7시 |
| 금 요 기 도 회 | | 오후 9시 30분 |
| 새 벽 기 도 회 |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